

# 민주통합당 전대 후보 9명 압축

컷오프 통과자

박용진 이강래 이인영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  
한명숙 이학영 김부겸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에서 후보자 15명 중 본선 무대 진출자 9명이 추려졌다.

26일 서울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에서 박용진·이강래·이인영·문성근·박지원·박영선·한명숙·이학영·김부겸(기호순) 등 9명이 본선 진출 후보로 확정됐다.

김기식·신기남·우재창·이종걸·김태량·김영술 후보 등 6명은 떨어졌다. 현장 투표에는 민주당·시민통합당 중앙위원 762명 중 729명(투표율 95.7%)이 참여했다. 투표는 중앙위원 1명당 3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비경선은 개회 선언·당대표 인사·후보자 전원 무대 인사에 이어 후보별로 5분간 정견 발표를 한 뒤 현장투표로 실시됐다. 득표율·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후보들은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2012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책임자는 자신이라며,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열린 예비경선에서 1·15 전당대회 출마자로 확정된 후보들이 두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예비경선 개표 결과 박용진 이강래 이인영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 한명숙 이학영 김부겸(기호순) 후보가 9위 안에 들어 내달 15일 개최되는 본선전에 출마하게 됐다. /연합뉴스

전 대통령이 일군 민주 정부 10년을 되찾고자 자리에 섰다. 민주주의의 최대 보루는 시민의 단합된 힘"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정권 연장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년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권주의를 내세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합쳐져야 민주통합당의 미래가 있다. 한 세력이 당권을 장악해서는 안된다"며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남북

문제 등 풍부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은 대선정국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자리다. 경험 많은 전두환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대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선언한 문성근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구도 타파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고, 대구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후보는 "박근혜씨와 한나라당의 아성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창과 방패를 달라"고 호소했다.

나머지 후보자들도 자신의 키워드를 내세우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중앙위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올인했다. 또 자신이 앞서 몸담았던 당 출신 중앙위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9명은 내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TV토론·전국순회 연설회 등 전당대회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30%(양동수·당원 및 시민 70%)로 구성된다. 민주당 당비당원 12만 명은 자동 선거인단으로 인정된다. 이날 전당대회 투표에서 6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최고 득표자가 당대표가 된다. 시민 직접 참여 비중이 커지면 선거인단 투표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종형기자 galee@

# 문재인·문성근·김정길 PK공략 '시동'

총선 출마 공식 선언

민주통합당 소속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내년 총선 부산·경남(PK) 공략을 위해 26일 부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부산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출마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저희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민주주의 성지 부산에서 불꽃을 일으켜 야권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3당 야합 이후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던 이곳 부산에서 온몸을 던져 싸우기로 결심한 저희를 비롯해 이번 총선에 임하는 야권 후보를 모두에게 열렬한 성원과 적극적인 투표로써 지지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침체된 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이사장은 서부산의 공단 밀집지역인 사상구, 문 대표는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다 낙산한 북·강서를, 김 전 장관은 부산진을에 각각 출마한다.

문 이사장은 별도의 회견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끝내 남지 못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부산의 달라진 민심에 새로운 위기를 노력이 더해지면 시민은 우리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부산에서 불꽃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가운데),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오른쪽),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총선 때 부산에서 출마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일으켜 야권의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며 "부산·경남에서 15석 이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참여정부 인사들이 낙동강 벨트를 동서로 확장해 PK 라인 구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과 경남을 가르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문 이사장과 문 대표, 서쪽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김해)과 송인배 전 청와대 행정관(양산) 등 친노 세력의 핵심 4인방이 출격한다.

부산에는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 이 사하갑에 출마하며 박재호 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 남구를, 전재수 전 대통령 제2부속장이 북·강서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최근 문 이사장과 공동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저서를 집필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출신의 김인회 인하대 교수가 연세출마를

고려중이다. 재선의 조경태 의원은 사하에 출마하고, 김영춘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산진갑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경남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김성진(마산갑)씨와 하귀남(마산을) 변호사, 김조원 진주과학기술대학 총장(진주갑)이 출마할 예정이다. 김해갑에는 참여정부에서 군 인사비리 수사를 맡았던 민홍철 전 군법무감(변호사)과 영영두 전 행정관이 경합 중이다.

여기에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경남지사가 1·15 전당대회 이후 입당, 총선 후보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포석이다.

민주통합당은 야권 연대를 통해 PK 지역에서 10석 이상을 얻어 전국당 및 원내 1당으로 우뚝 선다는 목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봉주 "진실 밝히는 싸움은 이제 시작"

한나라 이혜훈 의원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이 26일 오후 검찰의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후 1시10분께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나온 정 전 의원은 청사에서 10여분간 집행 절차를 거친 뒤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짬수다'(나짬수) 패널로 활동해온 그는 출석 직전 검찰청사 앞에

서 랜들럽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별행사를 했다. 검은 정장과 코트 차림으로 청사에 들어선 정 전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 입을 막고 진실을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장했던 진실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청사 현관 안으로 들어온 일부 지지자는 "정봉주 파이팅" "졸지마" 등을 외쳤다. 대법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지난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친박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비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 직업"이라며 "정 의원이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한나라 대변인 '쇄신과' 황영철 의원

한나라당 대변인에 26일 조선 황영철(강원·황성) 의원이 내정되면 27일 공식 발표되는 한나라당 대변인 인선이 핵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동안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해 온 황 의원은 당내 개혁성향 초선 의원모임 '민본 21' 소속으로 쇄신파로 분류된다.

특히, 황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시 당내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황 의원을 대변인에 중용함에 따라 비대위도 혁신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비대위 참여 인사로 쇄신파로 분류되는 권영진, 홍정욱, 김세연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당 밖 인사로는 개혁 성향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시 당내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특히, 비대위에는 광주·전남 등 호

남 지역 인사들의 참여도 거론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26일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7일 오전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선결과를 최종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의 절차에 따라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상임전국위는 전국에서 위원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 알려진 인선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회의 석상에서 명단을 내놓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제조방법) 특수 제작한 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온수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평종 위기 식음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황철산소를 얹어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물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 100% 국내산 참돔나무 진액 참돔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돔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돔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에도도 공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된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돔을 만들었습니다.

▶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산삼추출물을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름 생활을 휘림 참돔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